

2015 / 06 / 09 (TUE)

IT (소프트웨어/인터넷/IT서비스) 이경일 6099-8505 shinjohyub@barofn.com

국내 IT 업종 Comment

전일 국내 IT섹터는 소폭 하락. 美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금리인상 우려 확대로 대형 IT 주들이 약세 보이면서 지수하락 주도. 엔/달러 환율이 13년만에 최고치(125엔)를 기록한 것도 악재로 작용. 인터넷주가 반등한 반면 부품주는 약세.

수급측면에서는 외국인 기관의 동반매수세로 삼성테크윈 강세. 반면 기관의 매도세로 이오테크닉스, 삼성전기, 삼성SDI, 한글과 컴퓨터 약세.

종목별로는 저평가 상태라는 분석에 삼성테크윈이 7.2% 상승 마감.

외국인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NAVER	285 억	삼성전자	-481 억
삼성에스디에	68 억	SK하이닉스	-292 억
LG디스플레이	56 억	LG전자	-117 억
삼성테크윈	41 억	삼성전기	-99 억
다음카카오	36 억	이오테크닉스	-29 억
안랩	27 억	원익IPS	-26 억
조이시티	23 억	SK C&C	-26 억
다우기술	16 억	엔씨소프트	-23 억
OCI머티리얼	15 억	일진디스플레이	-22 억
유니테스트	13 억	KG이니시스	-20 억
가온미디어	13 억	선데이토즈	-17 억
한국사이버결	10 억	KH바텍	-16 억

기관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삼성전자	310 억	삼성SDI	-78 억
SK하이닉스	100 억	삼성에스디에	-77 억
엔씨소프트	55 억	NAVER	-65 억
다음카카오	42 억	LG디스플레이	-42 억
LG이노텍	42 억	삼성전기	-39 억
삼성테크윈	31 억	LG전자	-25 억
원익IPS	29 억	LS산전	-24 억
현대통신	26 억	한글과컴퓨터	-18 억
유니테스트	25 억	가온미디어	-16 억
마이크로컨텍	18 억	한국사이버결	-13 억
선데이토즈	18 억	이오테크닉스	-12 억
OCI머티리얼	15 억	팅크웨어	-11 억

반도체 / LCD 패널 가격

Product	close	1D	YTD
DXI (Index)	7073.18	-0.8%	-6.8%
DDR3 2Gb (Spot)	1.68 \$	-0.6%	-24.0%
NAND 64Gb (Spot)	2.58 \$	0.0%	6.6%

Product	Price	2W	YTD
DDR3 4Gb (Contract)	2.75 \$	-4.5%	-23.4%
NAND 64Gb (Contract)	2.61 \$	0.0%	-5.4%
LCD TV 32" Open Cell	86 \$	-1.1%	-8.5%
LCD TV 50" Open Cell	200 \$	-0.5%	-0.5%

국내 IT Sector

Index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KRX IT	1,434.10	-0.6%	-3.9%	-631 억	346 억
KRX Semicon	2,004.93	-0.9%	6.8%	-856 억	456 억
(코) 반도체	1,015.60	1.0%	27.4%	-8 억	93 억
(코) IT H/W	415.56	0.9%	19.2%	15 억	81 억
(코) IT S/W	2,218.14	1.5%	11.0%	107 억	70 억

하드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전자	1,314,000	-2.0%	-1.0%	-481 억	310 억
LG전자	53,500	-1.3%	-9.5%	-117 억	-25 억
삼성SDI	113,500	-2.2%	-2.2%	-3 억	-78 억
삼성테크윈	32,800	7.2%	37.5%	41 억	31 억
서울반도체	17,050	-0.6%	-15.6%	-5 억	1 억
신도리코	68,000	0.6%	0.3%	0 억	1 억

반도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SK하이닉스	48,050	-2.0%	0.6%	-292 억	100 억
이오테크닉스	111,000	-4.2%	-11.4%	-29 억	-12 억
원익IPS	15,150	2.7%	8.6%	-26 억	29 억
리노공업	48,950	1.8%	27.8%	-2 억	5 억
유진테크	18,050	-0.6%	11.8%	-12 억	6 억

IT서비스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에스디에스	275,000	0.7%	-6.3%	68 억	-77 억
SK C&C	278,000	-1.1%	30.2%	-26 억	5 억
포스코 ICT	4,975	-1.5%	-6.1%	-1 억	0 억
다우기술	17,250	2.1%	44.4%	16 억	-4 억

인터넷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NAVER	587,000	3.9%	-17.6%	285 억	-65 억
다음카카오	114,200	3.2%	-7.6%	36 억	42 억

디스플레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LG디스플레이	28,850	0.2%	-14.3%	56 억	-42 억
에스에프에이	46,100	-1.7%	-7.2%	-6 억	2 억
솔브레인	46,800	-1.0%	45.6%	-6 억	6 억
덕산하이메탈	9,150	0.0%	-17.9%	-2 억	0 억

전자부품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전기	55,600	-3.6%	1.6%	-99 억	-39 억
LG이노텍	96,300	0.1%	-14.4%	-9 억	42 억
파트론	9,430	-1.5%	-19.7%	-15 억	0 억
루멘스	4,765	-1.5%	-32.4%	0 억	0 억
일진디스플레이	10,250	-6.4%	50.3%	-22 억	-9 억

게임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엔씨소프트	193,500	0.5%	6.3%	-23 억	55 억
컴투스	142,800	-0.7%	6.1%	8 억	-2 억
NHN엔터테인먼트	56,800	7.2%	-35.1%	0 억	-4 억
게임빌	100,300	2.3%	-16.9%	0 억	0 억
위메이드	40,500	1.4%	7.1%	5 억	11 억
선데이토즈	18,550	0.5%	7.8%	-17 억	18 억

소프트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골프존	137,000	0.2%	442.6%	0 억	10 억
한글과컴퓨터	17,450	-2.0%	-13.6%	2 억	-18 억
코나아이	34,000	-2.0%	0.9%	-5 억	1 억
슈프리카	20,300	-0.7%	-20.2%	-1 억	1 억

해외 IT Sector

Index	close	1D	YTD
MSCI IT	151.93	-1.1%	3.4%
MSCI Internet	159.32	-1.3%	4.3%
MSCI Software	168.83	-1.0%	3.2%
MSCI Semicon	218.09	-1.7%	-0.9%
MSCI IT Services	123.12	-0.9%	4.6%

Internet

close	1D	YTD	
Google	543.48	-1.1%	2.4%
Facebook	80.67	-1.8%	3.4%
Tencent	155.10	0.3%	37.9%
Baidu	203.15	-1.3%	-10.9%
Yahoo	42.01	-1.9%	-16.8%

Software

close	1D	YTD	
Microsoft	45.73	-0.9%	-1.6%
Oracle	43.10	-1.6%	-4.2%
SAP	73.42	-0.3%	5.4%
EMC	26.66	-2.5%	-10.4%
Symantec	23.43	-2.4%	-8.7%

Handset

close	1D	YTD	
Apple	127.80	-0.7%	15.8%
Nokia	7.15	0.4%	-9.0%
Lenovo	11.86	-1.2%	16.3%
ZTE	22.35	-4.3%	32.7%
HTC	83.6	-9.9%	-41.1%

Semicon

close	1D	YTD	
Intel	31.30	-1.7%	-13.8%
Qualcomm	67.28	-1.4%	-9.5%
Texas Instruments	52.82	-1.8%	-1.2%
Micron	25.92	-2.5%	-26.0%
Toshiba	453	0.7%	-11.6%
Renesas	967	-0.9%	17.5%
STMicro	8.45	0.4%	13.1%

IT Services

close	1D	YTD	
IBM	165.34	-1.2%	3.1%
HP	32.69	-0.7%	-18.5%
Accenture	94.77	-0.7%	6.1%
Fujitsu	725	-1.1%	12.5%
NTT Data	5,510	0.2%	22.0%
CSC	67.05	-0.9%	6.3%

Hardware

close	1D	YTD	
GE	27.24	-0.2%	7.8%
Panasonic	1,736	-1.3%	21.7%
SONY	3,694	-1.1%	49.4%
Whirlpool	185.40	-1.3%	-4.3%
Electrolux	254.80	0.3%	11.4%
Haier	22.60	-1.1%	22.4%

Components

close	1D	YTD	
Murata	20,000	-0.3%	50.9%
KYOCERA	6,715	0.6%	20.9%
Nidec	9,001	-1.1%	14.6%
TDK	10,180	1.8%	42.2%
Ibiden	2,232	-0.9%	24.8%

Display

close	1D	YTD	
Sharp	169	-1.2%	-36.9%
Japan Display	537	2.7%	45.1%
AUO	4.96	-2.7%	-2.6%
Innolux	17.35	-1.4%	12.7%

인터넷 Internet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Industry		최근이슈

News & Issue

'반격에 재반격' 2라운드, 네이버 '핀테크' vs 다음카카오 '글로벌'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하반기 '핀테크'와 '글로벌'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주가도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 업계에서 네이버의 하반기 '승부수'로 단연 '네이버페이'를 꼽음. 네이버페이는 기존의 '네이버 체크아웃'을 재편한 간편 결제 서비스로 오는 25일 출시를 앞두고 있음. 원클릭 결제는 물론, 네이버캐쉬와 마일리지 통합하고 송금 기능까지 제공. KB국민카드와 비씨카드, 현대카드,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이미 14곳의 은행 및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상태.

네이버페이의 강점은 체크아웃을 통해 확보한 1,500만명의 가입자와 5만여개의 가맹점. 가입자 400만명과 100개 이하의 가맹점 확보에 그친 카카오페이를 크게 압도하는 수치. 여기에 자사의 쇼핑 O2O 플랫폼 '샵원도'와 맥락을 함께 하고 있어 폭발적인 시장 확대의 기반도 확보. 네이버페이는 검색과 결제의 시너지를 통한 원클릭 전자상거래로 발전한 가능성이 높으며 네이버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참여할 경우 관련 사업의 교두보로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됨.

반면 다음카카오는 '글로벌'에 주력. 다음카카오는 지난달 29일 미국 인터넷 서비스 기업 '패스'의 SNS '패스(Path)'와 '패스 토크(Path Talk)'의 자산을 인수한다고 밝힘. 특히 패스는 1,000만명 이상의 월평균이용자수(MAU)를 확보한 인도네시아 3대 SNS 중 하나.

국내를 평정한 카카오톡이 해외 시장에서 좀처럼 영향력 확대를 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카카오스토리처럼 그룹 중심의 비공개 SNS인 패스의 인수는 글로벌 시장 공략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현재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약 2.5억명. 특히 이미 다음카카오가 모바일 메신저 및 앱 SNS 고객들을 대상으로 카카오 게임하기라는 새로운 수익 사업을 정착시킨바 있어 패스가 향후 글로벌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 존재.

인도네시아 모바일 광고 시장은 스마트폰 사용자 증가에 힘입어 오는 2018년까지 14억 달러(1.5조 원)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 다음카카오는 패스 이수를 시작으로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할 전망. 특히 네이버의 '핀테크'와 다음카카오의 '글로벌'은 자사의 핵심 사업인 광고 매출의 성장에서 상당 부분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네이버는 지난 1분기, 전년동기 대비 18.3% 증가한 매출 7,406억원을 기록했는데 이중 광고의 비중이 72%(5,299억원)에 달하며 다음카카오 역시 합병 이전 양사 실적을 합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 늘어난 매출 2,344억원 중 광고가 60%(1,418억원)를 차지. 따라서 광고라는 확실한 '캐시카우'의 건재를 유지함과 동시에 새로운 수익을 확보해야 하는 두 신사업의 성과에 따라 하반기 두 기업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임.

전자부품 Components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Industry		최근이슈

News & Issue

"전자부품株 살 이유 없다"

전자부품 업종에 대해 스마트폰 판매가 줄며 실적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전반적으로 부품주를 살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에 약세. 지난 4월10일 판매를 시작한 삼성전자의 갤럭시S6 부품 주문이 5월 말까지는 강세를 보였지만 점차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

갤럭시S6에 대한 주문은 줄고 휴대폰 후속작인 갤럭시노트5와 아이폰6S의 파급력은 이전 모델들보다 낮을 전망. 2015년의 전반적인 모멘텀이 끝나가고 있어 부품주에 대해 중립적인 투자를 권고.

하드웨어 Hardware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삼성전자	-2.0%	최근이슈

News & Issue

삼성전자, 법인세율 인상 악재와 갤럭시S6 판매량 '의문'

삼성전자가 3거래일 만에 하락세. 올해 법인세가 인상될 예정인데다 갤럭시S6 판매 부진이 관련 부품업체들 실적 악화로까지 이어지면서 악순환이 연출. 삼성전자의 갤럭시S6 판매 실적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됨.

삼성전자가 갤럭시S6의 정확한 판매량을 밝히지 않는 사이 최근 외신과 시장조사업체 등은 갤럭시S6 판매에 대한 평을 속속 내놓음. 미국 비즈니스인사이드는 지난달 28일 "삼성전자의 갤럭시S6 출하량은 전작인 갤럭시S5에 못 미친다"며 삼성이 소프트웨어 발전 없이 하드웨어만 업그레이드하는 잘못된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

포브스도 앞서 "삼성전자의 갤럭시S6 출하량이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갤럭시S6 7,000만대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 국내에서는 출시 초 판매에 비해서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현저히 판매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지적. 2013년 4월에 판매개시된 갤럭시S4는 출시 첫달에 공급기준 1,000만대를 판매했으며 첫 해 4,600만대를 판매. 하지만 지금의 추세로 본다면 이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특히 올해 유효 법인세율이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할 전망. 삼성전자의 유효 법인세율 지난해 16.1%에서 올해 23.8%로 크게 상향될 전망. 작년에는 연말 해외법인 법인세 환급 효과가 있었던 반면 올해 들어서는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크게 축소.

하드웨어 Hardware

Region	종목	1D	Category
해외	HTC	-9.9%	주가하락

News & Issue

HTC, M9 안팔려 올상 "4분기 연속 적자 전망"

대만의 스마트폰 업체 HTC가 실적부진 전망에 약세. 6일(현지시간) 폰아레나는 HTC가 최신 스마트폰 'M9'의 판매부진 때문에 2분기에도 극심한 매출 부진을 겪을 것이라고 보도.

HTC는 이날 2분기 예상 영업손실이 2.57억~2.91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힘. 이는 4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걷는 것. 또 HTC의 주가는 지난주 수요일 역대 최저점을 기록. 매출전망도 기존예상치 14.8억~15.6억달러에서 10.6억~16.6억달러로 하향조정.

이는 플래그십 모델 M9의 판매부진 때문으로 해석. 지난해 상반기까지 'M8'이 약 800만대, 2013년에는 'M7'이 700만대가 출하된 것에 비해 'M9'은 450만대밖에 팔지 못함. 경쟁사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에 비해 강점을 보이지 못하는 점과 발열 문제를 겪고 있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10 프로세서를 채택한 것이 판매 부진의 요인.

이에 HTC는 원M9의 생산이 예상치에 비해 30%나 줄어 공장을 계획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음. HTC는 9,300만달러에 해당하는 유휴설비를 감감할 것으로 전망됨. HTC는 이날 남은 기간 동안 실적 개선을 하기 위한 의지를 내비침.

처 왕 HTC CEO는 "스마트폰 사업 부분을 더욱 경쟁력 있게 바꿔야 한다"며 "생산 비용을 줄이고 더욱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겠다"고 언급. 또 그는 "스마트폰 외의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임. 한편 지난주 HTC는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의 스마트폰을 10월에 출시할 것이라고 밝힘.

디스플레이 Display

Region	종목	1D	Category
글로벌	Industry		최근이슈

News & Issue

올해 스마트워치용 패널 출하 전망치 3,400만대, 손목 위 디스플레이 시장

스마트워치 시장이 올해 본격 개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관련 디스플레이 패널도 유의미한 출하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 제기됨. 8일 IHS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올해 스마트워치 디스플레이 패널 출하량은 전년 대비 250% 확대된 3,400만대에 이를 전망. OLED는 스마트워치의 주요 디스플레이 패널 기술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관측. 올해 출하되는 스마트워치용 디스플레이 패널 가운데 OLED가 차지하는 비중은 과반이 넘는 58%를 기록할 전망.

애플 워치, 삼성 기어 시리즈에 OLED 패널이 탑재되면서 이 같은 추정을 내놓은 것으로 보임. 다만 대부분의 물량은 애플이 소화할 것으로 전망. 스마트워치용 OLED 패널 출하량 가운데 애플이 소화하는 비중은 84%에 이를 전망. LCD 패널을 포함한 전체 워치용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애플이 소화하는 물량 비중은 49%가 될 전망. 사실상 초기 스마트워치 시장은 애플 워치가 견인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

한편 SA는 올해 스마트워치 완성품 시장 규모를 2,810만대로 예상. 가운데 애플 워치 출하량은 1,540만대로 전체 시장의 54.8%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히로시 아야세 IHS 연구분석 이사는 "애플 워치는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수요가 증가가 예상된다"며 "디스플레이 업계는 미래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을 위해 현재 스마트워치 사용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

반도체 Semicon

Region	종목	1D	Category
글로벌	Industry		최근이슈

News & Issue

WSTS "올해 반도체 시장 성장률 3.4%", 향후 수 년간 안정적 성장세

세계 반도체 시장이 향후 수 년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 7일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는 올해 반도체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3.4% 증가한 3472.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이 같은 전망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예상치와 동일.

지난해 반도체 시장은 D램 메모리 시장 호조에 힘입어 9.9%의 성장률을 기록. 올해는 이보다 성장률은 줄어든 것으로 예상됐지만 2017년까지 3%대의 '안정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WSTS는 매년 5월과 11월 회원사와 판매 데이터를 공유하고 분석한 뒤 6월과 12월 장기 시장 전망치를 발표. 이 기구에 가입돼 있는 반도체 업체는 48개사. WSTS의 전망치는 이들의 실 판매 데이터와 목표치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신뢰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올해 제품별 성장률은 LED와 같은 광전자(Optoelectronics) 제품이 8.3%, 아날로그가 5.6%, 로직이 3.6%, 메모리가 2.8%, 센서류 2.2%, 모스펫과 같은 개별(Discrete) 반도체가 1.1%, CPU, AP 등 마이크로프로세서가 0.8%를 기록할 전망. 아날로그와 로직 제품군의 성장세가 비교적 높은 이유는 사물인터넷(IoT) 트렌드 확산으로 관련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 광전자 제품군의 성장률이 높은 이유는 LED 수요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 다만 LED는 공급 증가량이 수요를 넘어서기 때문에 개별 업체들의 실적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

올해 지역별 시장 규모는 일본과 유럽이 각각 -9.5%, -3.6%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미국은 7% 및 3.7%의 견조한 성장세를 달성할 전망. 일본의 역성장률이 큰 것은 엔화 약세 때문. 엔화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올해 일본의 반도체 시장 성장률은 2%에 이를 것(지난해 엔화 기준으로 일본 지역의 반도체 성장률은 8.4%)으로 예상. 지역별 시장 규모는 해당 지역의 반도체 소비액을 의미. WSTS는 "세계 반도체 시장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대의 완만하면서도 안정적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

반도체 Semicon

Region	종목	1D	Category
해외	Micron	-2.5%	주가하락

News & Issue

마이크론, 단기적인 PC DRAM 부진 전망에 약세

마이크론테크의 주가가 단기적인 PC DRAM 부진 전망에 약세. UBS는 마이크론의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고 이로써 마이크론은 물론 반도체주 주가 전체에 악재로 작용.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92% 하락.

D램 부문은 20나노 공정으로의 전환과 개발이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생산량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 4분기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마이크론의 D램 펀더멘털은 약세를 보일 전망. 따라서 실적이 개선될 때까지 향후 주가는 몇 개월 동안 박스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

게임 Game

Region	종목	1D	Category
글로벌	Industry		최근이슈

News & Issue

중 온라인게임 시장, 역성장 전망, 모바일이 대세

세계 최대 온라인게임 시장인 중국도 이제 모바일게임이 대세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 온라인게임은 이용자층의 포화로 향후 역성장 국면이 예상되는 가운데 모바일게임은 성장을 이어가 내년 중 중국의 시장 규모가 미국을 추월할 전망.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5일 발간한 '글로벌 게임산업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애널리시스(Analysys)가 2015년 1분기 온라인게임 시장이 전년대비 2.5% 감소한 145.4억위안(약 2.6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발표. 그 동안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은 10년 이상 고속 성장을 이어오다 2014년부터 모바일게임에 주도권을 내주면서 완만한 하락세.

물론 온라인게임 시장은 중국에서 여전히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 게임사들이 중점 투자항목을 모바일게임으로 전환했고 점차 신작 발표가 줄어드는 추세. 이를 감안하면 모바일 게임 위주로 재편이 진행된 국내처럼 시장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 애널리시스는 지난 1분기 기준 온라인게임 이용자 보급률이 25.6%로 이미 포화 상태에 달한 것으로 예상. 이에 업체는 향후 온라인 게임 시장이 마이너스 성장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현지 온라인게임 시장은 텐센트가 53.8%에 달하는 압도적인 점유율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뛰어난 개발력을 갖춘 넷이즈가 16.0%를 차지. 산다게임즈와 소후창유 그리고 완미세계가 각각 5.6%, 5.3%, 5.1% 순으로 뒤를 이음.

뉴주(Newzoo)는 중국 모바일게임 시장의 성장의 원동력으로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이용자 기반의 급격한 증가를 지목. 이미 2014년 기준 중국의 모바일게임 이용자 수는 약 3.83억명으로 이미 미국의 1.37억명을 2배 이상 상회. 2017년엔 중국과 미국의 모바일게임 이용자 수 격차가 각각 4.75억명 과 1.57억명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측.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6월 9일 현재 지난 3개월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6월 9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6월 9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